

명말청초(明末清初) 소주(蘇州) 정원의 문화정치학

원자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I. 서론

명 말엽은 위대한 정국(政局)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전례 없던 성황을 이루었던 시기였다. 이처럼 모순적인 사회적 상황에서도 정원문화가 고도로 발달하여 명말 당시 강남지역의 대도시 소주는 '도성 안 절반의 땅을 정원이 차지하고 있었고', 모든 도시가 소주를 본보기로 삼아 정원을 조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Tong, 1994). 이와 같은 정원문화의 흥성은 명-청 전쟁 시기에 한동안 중단되었지만, 청대 초기에 청명한 정세(政勢)로 접어들면서 다시금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명말에서 청초에 이르는 시기의 정원 향유자들은 사회의 상류계층인 귀족과 사대부뿐만 아니라, 상인계층, 시민계층, 여성이 망라되었다. 따라서 당시는 '정원문화의 대중화 현상'이 도래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명말부터 청초까지 소주의 정원문화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첫째, 정원문화 대중화의 형성 요인은 무엇이고, 이것은 당시 사회의 정치, 경제, 사상, 그리고 토지제도 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 둘째, 본래 사회 상류계층의 특권적 향유문화인 정원문화가 명말청초에 대중화되면서 어떤 계층적 충돌과 갈등이 벌어졌는가? 셋째, 정원을 향유하는 사회계층 간의 차이에 따라 형성된 정원관(庭園觀), 정원의 설계양식, 일상의 향유 방식, 교류(交遊) 네트워크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본 연구는 정원을 사회 공간 생산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문화 정치학의 관점으로 명말청초 중국 소주의 정원문화를 연구함으로써 이에 반영된 정원의 다원적 양상을 고찰하고, 사회적 실태가 정원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 고찰

1. 문화정치학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

문화정치는 문화를 경제 및 사회와 동떨어진 순수한 미학적 인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을 지양하고, 문화를 지식인, 예술가와 같은 엘리트 집단의 산물로 바라보는 방식 또한 거부한다. 문화정치는 성, 인종, 지역 등 서로 다른 계급집단의 다양한 하위문화에 초점을 둬으로써 다양한 의미의 지도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세계와 그 이면에 있는 문화적 차이의 불평등한 사회적 권력관계를 연구한다(Jackson, 1989).

문화정치 연구는 인식과 사고의 다양한 프레임 간에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각축이 일어나는 영역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이 '정상적'인 것인가 하는 것은 선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축'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정상'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식과 사고의 프레임들 간에 경쟁과 투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과 결과, 그리고 그 결과의 파급효과 등을 연구하는 것이 문화정치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Choe, 2012).

2. 문화정치학의 관점으로 본 명말청초 정원의 정의

정원의 연구는 단지 시각적인 형태나 재료 또는 설계양식의 역사에 대한 검토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이른바 정원이라고 부르는 장소의 다양함과 내밀함 때문에 정원의 역사는 예술사, 정치사를 비롯하여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등의 인접 학문과 관련이 있다(Hunt, 2013). 명말청초 시기 이전의 중국 봉건사회에서 정원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상류계층만이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이 정원문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까지의 정원문화는 엘리트주의의 특성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명 말엽부터 정원은 사회 각 계층의 사람들이 모두 향유할 수 있는 대중적 문화 현상으로 발전한다. 특히 당시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소주에서는 정원의 향유가 일상화되면서 일종의 대중적 유행으로 번진다. 이처럼 발달한 정원문화하에서 '중국 정원'이 기존의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점차 변화시키면서 정원은 더 이상 귀족만의 엘리트적 향유문화가 아니라, 사회 모든 계급의 여가 생활 일부가 된다. 정원문화의 대중화에 따라 상인 정원과 서민 정원이 만들어졌고, 새로운 향유자 부류인 여성이 정원의 역사 속에 등장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귀족 사대부계층에 의한 정원문화가 주류(主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상인, 서민, 그리고 여성에 의한 정원문화는 사회 상류 계층의 기준으로는 비주류(非主流)의 영역에 속했다. 향유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같은 문화에 속했던 정원문화가 이처럼 두 갈래로 분화했던 가장 큰 원인은 사회 계층의 차별성이다.

이 두 갈래의 정원문화 사이의 갈등은 중국 전근대(前近代) 봉건사회 질서에 대한 저항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명말청초의 정원은 단순한 정원 그 자체가 아니며, 단지 높은 조원 예술의

구현으로 정의할 수만은 없다. '정원'은 하나의 계기로서, 사회 각 계층의 시민들이 자신이 문화 활동을 향유하는 권리를 추구하는 문화적 생산물이다. 따라서 정원문화는 사회 계층 간의 갈등 하에 주류와 비주류 정원문화가 서로 충돌하면서 기존 중국 정원문화의 전통을 전복(顛覆)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대화(近代化)된 정원문화의 양상이 펼쳐졌다.

III. 정원문화 대중화의 형성 요인

명 말엽부터 시작되어 청 초엽까지 정원문화가 대중화되는 원인은 다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명 말엽에 붕괴한 봉건사회의 질서 때문에 사회 각 계층 간의 관계가 재정의 되면서 상류계층과 일반 시민계층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었고, 본래 봉건사회 상류계층만 향유할 수 있었던 정원문화가 사회 각 계층 사람들의 향유 대상이 되었다. 둘째, 명 말엽에 성행한 이른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심학(心學) 사상으로 민중들의 인권 의식이 고무되었고, 이로 인해 본래 사회 상류 계층에게만 전속(專屬)되었던 정원문화가 보통 시민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로 제공되었다. 셋째, 허술한 토지 제도로 인해 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이 손쉽게 땅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정원의 과생산(過生産)이 조성되었다. 넷째, 경제 수준의 발달로 인한 사회 상업화의 배경 아래에서 소비성(消費性) 정원문화가 탄생하여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원을 가꿀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고, 정원문화의 대중화 현상이 대두하였다.

IV. 소주 정원에 대한 문화정치학적 해석

1. 은둔의 혼돈: 사대부 정원에 나타난 패권주의

명 말엽부터 정원은 사치스러운 형식미를 띠며 전개되지만, 사대부 정원은 당시의 유행에 어울리지 않는 현상으로 연출된다. 사대부 정원의 설계는 예스러운 정원문화를 추앙하였고 소박한 스타일로 구성되었다. 사대부 계층의 독특한 이념이 정원 문화에 반영되면서 새로운 유행에 저항하는 사대부의 의지가 정원문화를 주도하게 된다. 정원은 단지 사대부의 일상과 예술을 담은 장소를 넘어 그들의 신분과 계급이 명시되는 장소였다. 따라서 사대부는 상업화된 정원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과 함께 그들 계층을 대표하는 고유한 정원문화를 자신의 정원에 담고자 하였으며, 정통과 상업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사대부 계층이 속하는 정통의 영역을 고수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사대부 정원에서 나타나는 정원 문화는 사대부의 문화적 패권 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2. 숨겨진 야망: 상인 정원의 계급적 함의

상인들은 대부분 거액으로 유명한 조원가를 초빙하여 자신의 정원을 설계했고, 정원을 준공한 후에는 화가를 고용하여 정원의 풍경을 그림으로 남겼다. 또한, 그들의 인맥에 속한 사대부와 귀족들을 초청하여 자신의 정원을 구경시켰는데, 이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목적 외에도 자신이 사대부와 같은 정원 생활을 하는 사실을 교유 네트워크를 통해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도였다. 상인에게 정원은 사회 상류계층 속으로 파고들어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계급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수단이었으며, 따라서 상인 정원은 계급적인 함의를 지닌다.

3. 젠더 의식의 형성: 정원에서의 여성

귀족 여성들은 자신의 귀족 신분을 남성과 같은 방식의 정원 향유로 표현하였다. 기생은 정원의 문화자본의 일부로 인식되어 정원 향유 활동의 투자로 간주되었으며, 그들로 대표되는 정원 향유는 귀족 여성들의 걸치레를 위한 정원 향유 행위보다 실제 남성 귀족의 정원 향유와 가까웠다(Hardie, 2007). 이러한 현상은 여성이 정원을 즐기고자 하는 권리를 사회적으로 남성의 권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사실로 볼 수 있다. 즉,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정의를 바꾸어 그들의 젠더 의식을 일깨우고 여성의 정당한 계급 권리 추구를 용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V. 결론

명말청초 소주 정원문화의 대중화 현상에서 사대부계층은 상인계층이 조성한 정원의 상업화 열풍에 저항하는 반면, 상인계층은 정원을 향유함으로써 사대부계층과 가까운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된다. 여성은 사대부와 상인 계층이 조성한 정원문화의 한 부속품으로 등장하였지만 봉건사회 질서가 붕괴하면서 소주 정원문화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여성의 사회적 권리가 실현되는 결과를 낳았다. 대중화된 정원문화의 내부적 모순과 이익 관계는 소주 정원에 내포된 계급성을 함의함과 동시에 소주 지역의 계급화된 정원 문화 현상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1. 최진우(2012) 정치학적 문화 연구의 지형과 지평. 국제정치연구 15(1): 59-85.
2. Hardie, A.(2007) Washing the Wutong Tree: Garden Culture as an Expression of Women's Gentility in the Late Ming. The Quest for Gentility in China: Negotiations beyond Gender and Class. Routledge. pp. 45-57.
3. Hunt, J. D. & M. Leslie(2013). A Cultural History of Gardens. Bloomsbury Academic. p. xii.
4. Jackson, P.(1989) Maps of meaning: An introduction to cultural geography. Unwin & Hyman.
5. 童賽玲.(1994). 明末清初江南園林的發展及其美學思想. 新美術, (4): 26-31.